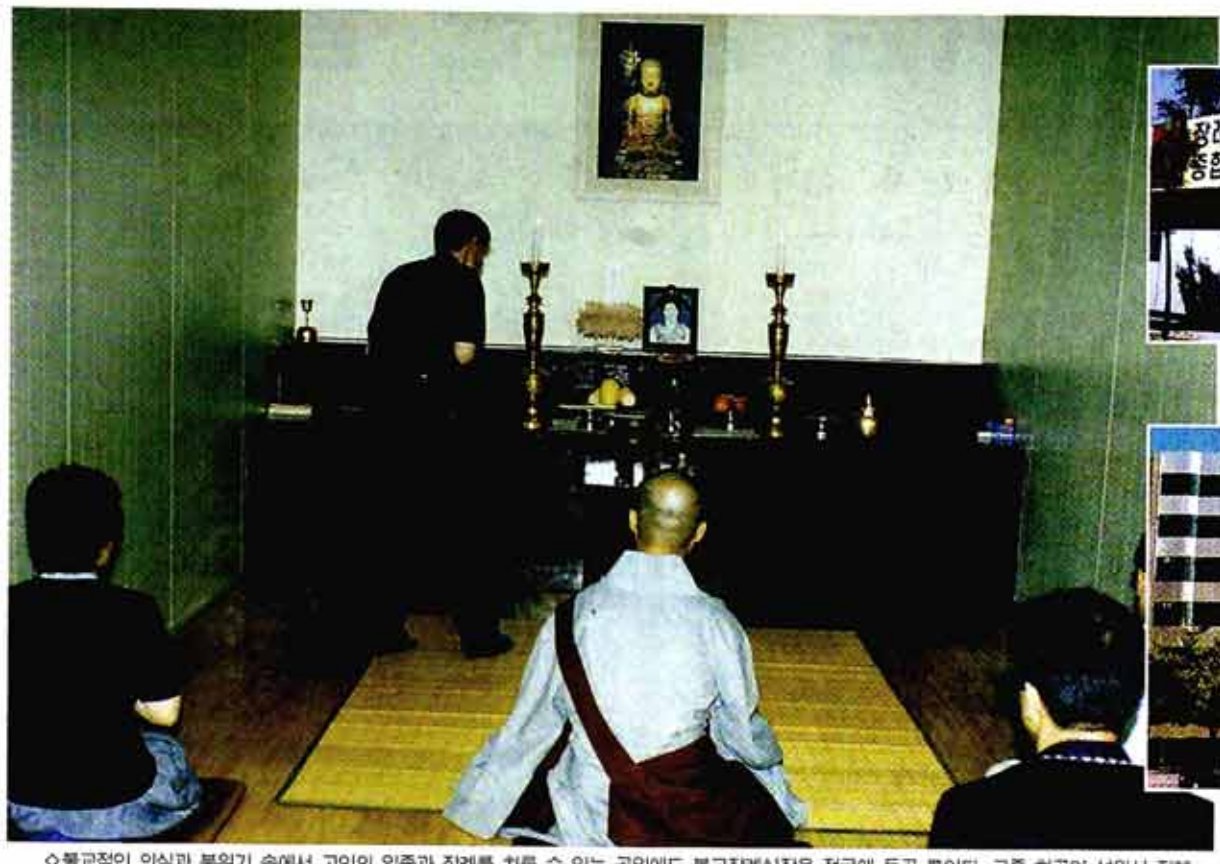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전국 (080)064-1300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불교적인 의식과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임종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교장례식장은 전국에 두곳 뿐이다. 그중 한곳인 석왕사 장례예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부천 석왕사 장례예식장인 왕생극락전.

◇광주 빛고을장례식장 전경.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불교 장례예식장

석왕사 왕생극락전·빛고을 장례식장 2곳뿐
95년부터 설립신고제…일정시설 갖추면 가능

인천 갈산동에 사는 이명호씨(55)는 20일 오전 10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천 석왕사 장례예식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장례식장에서 보낸 영구차는 1시간도 못돼 도착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도착하자마자 이곳의 직원들은 시신의 팔다리를 반듯이 펴는 수시(收屍)를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그리 간단치 않을 일이었다. 수시가 끝나자 초와 향을 피우고 분향실이 차려졌고 1시간여만에 장례식 준비가 순조롭게 끝났다.

잠시후 스님 한 분이 들어오더니 어머니 영정을 마주보고 시다림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의식인가 싶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인을 사후세계로 편안히 인도하기 위해 염불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소 절에 다니시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공경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부처님 사진 아래 모두 불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1시간여의 시다림은 고인뿐만 아니라 상심한 가족 모두를 편안케 해주었다. 시다림이 끝나고 수의며 상복이며, 각종 상제용품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과 상담을 통해 결정했다.

저녁이 가까와 오자 스님이 오셔서 또 시다림을 해주었다. 발인까지 모두 다섯차례나 시다림을 해준다고 한다.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벽제나 부평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어머니 유골을 이곳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다. 모레면 발인인데 발인하기 전에 치르는 입관식과 성복제(입관후 상복을 입고 영가전에 제상을 마련해 분향하는 의식)도 이곳에서 맡아준다니 걱정을 덜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기까지의 모든 절차도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니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편안히 모신 것같아 마음이 가뿐했다.

불교 장례예식장은 이처럼 상업적인 일반 장례식장과는 모든 면에서 크게 다르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병원 영안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병원 영안실의 경우 장소가 비좁은데다 옆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시끄럽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사용료도 엄청나다. 고인을 예경하는 분위기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불교 장례식장은 보다 넓은 장소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다. 스님이 해주는 시다림과 염습은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필요한 물품은 싼 값에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 장례예식장은 불자들은 물론 타종교인에게까지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찰내에 장례식장과 납골묘가 일반화돼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능인선원, 영각사 등 몇몇 사찰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불교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정신적 위안감을 주는 등 포교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불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스님)와 전라도 광주 연화회(회장 회정스님) 두 곳뿐이다. 사찰로서는 유일한 '왕생극락전'으로 불리우는 부천 석왕사 장례예식장은 지난 97년 개원, 안락정토실(임종실) 도솔천궁(분향소) 왕생당(안치실) 납골당 상의용품관매소 등과 주방 접객실 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한달 평균 30여건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을 이용하는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들도 적지 않다. 저렴한데다 분위기도 좋기 때문이다. 스님이 정성껏 해주는 시다림과 염습(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은 다음 입관하는 절차)은 이곳을 이용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듯 가장 감동을 받았던 때라고 말한다.

광주 빛고을 장례예식장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광주 연화회가 설립, 지난해 11월 문을 연 우성병원 부설 빛고을 장례식장은 석왕사만큼 저렴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장례식장보다 최소 10%이상 싸다.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에게는 20% 이상 할인해준다.

한달 평균 30여명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곳 역시 불자뿐만 아니라 타종교인에게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개신교 천주교식 분향소를 종교에 맞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그래서인지 이용자의 70%가 천주교인이다.

사찰 장례식장 설립은 생각보다 쉽다. 95년부터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일정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 관청에 신고만 하면된다. 갖춰야 할 시설로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냉장시설과 예식실, 접객실, 주차장, 화장실 등이며,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관광집회시설로 건물용도변경을 하면된다.

부천=한명우 기자, 광주=주용직 지사장
(mwhan@buddhapia.com)

◇석왕사 납골당. 화장후 유골함이 여기에 영구히 봉안된다.

◇석왕사 임종실.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다.

유족의 말

"비용싸고 분위기 엄숙 차분하게 '큰일' 치뤄"

지난 14일 아내의 상을 당한 노희영씨(52·부천시 원미구)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는 아내의 뜻대로 고인을 석왕사 장례예식장에 모셨다. 노씨는 발인때까지 줄곧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갑작스런 일이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웠지만 노씨는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차리면서부터 오히려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어디 할 줄 모르던 노씨에게 장례식장의 직원들은 친절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내를 석왕사로 모시자고 했어요. 평소 아내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응했는데,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스님이 해주신 염불때문인지 아내가 극락왕생했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노씨를 놀라게 한 것은 스님들과 직원들의 친절뿐만이 아니었다. 비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도 저렴한 값이었다. "운구에서부터 화장이나 매장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고 수의, 관 등 일부 장의용품을 제외하고는 분향실 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라서 비용이 시중의 4분의1 수준이더군요. 일반 영안실 일부에서는 폭리를 취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노씨는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곳에서 장례를 모시고 싶고 자신도 부처님곁에서 잠들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수첩

부처님 품에서 잠들도록…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장례식장은 석왕사 장례식장(032-663-7771)과 빛고을 장례식장(062-225-2444) 단 두 곳이다. 납골묘는 그런대로 생겨나고 있지만 장례식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뤄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개종하는 사례도 있다. 인간에게 생사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고, 장례의식과 장소문제 등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소홀히 여겨왔고 따라서 포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장례식장의 부족은 바로 이를 증명한다.

그 원인으로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부족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불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스님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사찰운영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인은 불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죽으면 절로 간다. 장례식장과 납골묘 등 일본의 장례문화는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가 부처님 곁에서 잠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불교 장례식장과 장례문화가 없다는 것은 불교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포교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빛고을 장례식장 회장인 회정스님(일본 관음사 주지)은 "불교계가 앞장서서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천 장암리 마애불은 독특한 형태로 연구가치가 높다.

마애불을 찾아서

이천 장암리 관음보살상

고려 경종때 조성…보물 지정 손에 연꽃가지 들고있어 '특이'

경기도 이천시 장암리의 미륵바위라는 커다란 화강암에 조각돼 있는 이 마애불은 보물 제982호로 지정돼 있다. 바위뒷면에 '태평흥국 6년 신사 이월 십삼일 향도…'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고려 경종 6년(981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화불이 새겨진 높은 보관을 쓰고 손에는 연꽃 가지를 들고 오른 발을 내려 앙련좌위에 놓고 왼발은 오른쪽 무릎위에 올려놓은 반가상이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고 넓은 이마, 짧은 듯한 두 귀, 두꺼운 입술은 둔중한 느낌을 준다.

양 어깨위에 통견의 법의가 희미하게 선각되었고 가슴에는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꽃을 든 오른손은 신체에 비해서 왜소한 편이다. 이 보살상은 통견식 불의에 높은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손에 든 독특한 형태의 관음보살로 지방색이 짙고 조각성은 떨어지지만 10세기에 조성된 기년명 조각으로 다른 통시대 불상과 비교 연구자료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우)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마포빌딩 (전화 : 02-705-5500~1)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화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배현 용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떨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운전사고 예방, 시험대비 합격기원
건강을 지키기위해, 부와 사업번창, 불운과 재앙방지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백자(27cm×32cm)화한 백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